현장의 목소리

“국적은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습니다.”

- 노조탄압과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야기

임용현 상임활동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지역지회 등지에서 울려 퍼진 이주노동자 단결의 함성이 올해 들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와 함께 노조로 뭉쳤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국경과 인종, 피부색을 넘어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부대낌이 뒤따른다는 걸 알기에 현장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일강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고 겪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심승보 지회장에게서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21일 지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에 배석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금속노조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께도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뼈 빠지게 일 시켜도 군말 없이 해내던 시절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일강은 엔진 및 변속기 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회사다. 국내에는 평택과 김제에 공장이 있고, 두 공장 합쳐 노동자는 400여 명이다. 심 지회장은 지평선산단에 있는 ㈜대승 김제2공장에 2009년 입사했다가 같은 계열사인 ㈜일강으로 2012년 자리를 옮겼다. 두 회사 모두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사인 대승그룹 소속이다. ㈜일강에서 제조한 부품은 주로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등에 납품된다. 완성차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되어, 김제 지역에서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가공생산부에서 반장으로 줄곧 일해온 심 지회장이 노조 설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일까.

“전에는 주 70시간 넘게 일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잔

업·특근 한 번 빼기도, 휴가 쓰기도 힘들었죠. 산재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산재 신청을 가로막고 공상 처리하거나 '부서화합비'라고 모아둔 돈으로 치료비를 대주곤 했습니다. 임금은 늘 최저시급이었고요.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조가 필요하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동조건을 바꿔보기로 했고, 2025년 2월 금속노조 가입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은 일찌감치 유령노조를 만들어뒀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령노조. 이렇다 할 노조 활동은 전혀 없었고, 본인이 유령노조 임원인 줄도 모르는 관리자가 있을 정도였다. 어용노조밖에 없던 시절, 일강 노동자들은 극심한 현장 통제에 시달리며 일해야 했다. 시업 5분 전 조회는 물론이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5분 일찍 라인에 투입되기 일쑤였다. 정주노동자들도 그럴진대, 하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들 상황은 어땠을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달간 휴가를 보장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회사가 이주노동자들 휴가를 2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으로 휴가를 가려면 비행기표 예매부터 각종 서류 준비하느라 2~3일은 족히 시간을 써야 하거든요. 심지어 한 이주노동자가 비행기표를 예매해놓았는데, 회사가 물량이 많다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해서 결국 푯값도 환불받지 못한 적도 있어요."

민주노조 만들고 현장도 안전해졌다

무권리의 현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서자 많은 게 달라졌다. 회사가 걸핏하면 어겼던 주52시간 노동이 드디어 지켜졌고, 연차 사용도 자유로워졌다. 조기 현장 투입, 무급 조회 같은 공짜 노동도 사라졌다. 그동안 회사 마음대로였던 노동시간 길이와 휴식일 배치에 대해 이제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넓어졌다고 심 지회장은 말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강요당했던 잔업이나 특근을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조합 있기 전에는 주말 특근 계획을 그 주 목요일 돼서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거든요. 지금은 특근 일정이 잡히기 1~2주 전에 현장 노동자들에게 미리 특근 여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현장에서 위험은 시시각각 닥쳐온다. 위험 요인이 즐비했던 현장을 탈바꿈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기존에도 이런저런 안전 설비는 있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느냐가 중요하단 걸 노조하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든지, 계단 폭과 너비는 어때야 하는지 법에서 세부 기준을 다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노조 만들고 나서 회사도 서둘러 재정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을 보면서 비용도 꽤 들였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당연히 준수해야 했을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마저, 지회 설립을 계기로 순탄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회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도 구멍 뚫린 현장의 안전 문제를 뒤늦게 메꿔 나갔다. 때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고,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왔고,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진정하면서 바꿔낸 거죠. 일례로, 예전엔 현장 바닥에 절삭유가 흥건했어요. 절삭유가 사방으로 튀는 걸 방지하려고 가공 설비 앞쪽에 가림판을 설치했고, 그 뒤로 화재위험이나 낙상사고 같은 위험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이 이주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

생산 관리에만 치우쳐 있던 회사를 바로 세운 민주노조는 저들에게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심 지회장은 회사가 김제 공장에 있는 8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주노동자 가입으로 민주노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2025년 단체협약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자 변경이나 재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로 노사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회 설립 이후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유령노조에 직원들을 무더기로 가입시켜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가로채더니, 이주노동자 평가 기준도 일방적으로 개편한 겁니다."

일강 사측은 어용노조 몸집 불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용노조가 다수노조로 올라선 순간 탄압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2026년 4월, 사측은 어용노조 간부를 이주노동자 인사 평가자로 전격 선임했다. 민주노조 설립 직후였던 2025년 2월,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달려가 "금속노조 계속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비자 연장 안 시켜줄 것"이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장본인이었다. 그 뒤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제가 3년 전 반장으로 있을 때 현장 노동자 한 분이 끼임 재해로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 회사가 재해자에게 치료비 4천3백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사건을 다시 꺼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회장 개인을 표적 삼은 탄압은 현장 투쟁으로 막아냈지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간부가 인사 평가자로 변경된 이후, 모두 13명의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주노동자에게 비자 연장과 재계약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비자 변경 및 연장에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 시기도 원래는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잡혔다. 게다가 지회 설립 전까지만 해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 2026.10.21. 현장 투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 중인 심승보 금속노조전북지부 일강지회장. 사진 : 한노보연

변경·연장이 거부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평가 기준 미달로 체류 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한 이주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동지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인사 평가 자료를 보면 '금속노조 조합원 축출'이라는 목적하에 평가 점수를 날조했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성과 평가 항목에는 근태나 다기능화 같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 1차 평가를 한 조장은 80점을 매겼더라고요. 재계약 기준이 70점이거든요.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하는 현장 관리자는 높게 평가했는데, 정작 이 노동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부서장, 기장 같은 인사들이 고의로 낙제점을 매긴 겁니다."

체류 자격과 취업비자를 볼모 삼아 이주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사측에 맞서 일강지회는 8월 11일부터 사무동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중단과 인사 평가 기준 투명한 공개, 계속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73일째(10월 21일 기준) 무기한 로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쳐서 지독한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 동지들의 투쟁에 저희도 용기를 얻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희 간부 동지들도 매일 회사의 출입 방해로 로비 농성 들어갔다가 출구가 막혀서 애를 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생한 만큼 다가올 승리의 기쁨도 곱절로 커지리라 믿습니다. 일강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 때까지 동지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일터